

100억짜리 '충장로 살리기 사업' 효과 의문에 대폭 수정

올해 사업 3년차, 중복 투자·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반복 광주시·동구, '충장영화제' 폐지 등 세부사업 축소·변경

예산 100억원이 투입된 '충장로 상권살리기 5개년 계획'(충장 르네상스)의 주요 사업이 대거 축소,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예산 중복투자에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우려(광주일보 2023년 8월 14일자 6면)가 현실이 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예초 사업 계획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13일 충장로 상권살리기 5개년 계획 중 일부 사업을 폐지 및 변경하는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장 르네상스는 쇠퇴한 구도심 충장로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월 시작해 오는 2026년 12월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총 예산은 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구비 2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 상황에서 광주시와 동구는 올해 사업을 대폭 변경 및 폐지하기로 했다.

동구 내부에서도 타 부서의 사업과 내용이 서로 겹치는 등 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충장영화제'(당초 예산 4억 4000여만원)는 한 번도 열리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동구가 지난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사업으로 '광주극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충장영화제를 별도로 기획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충장로 상권살리기 5개년 계획' 변경안
- '충장영화제' 폐지
 - '광주극장 살리기' 프로젝트와 중복
- 금남지하도상가 '에코가든스테이' 폐지
 - '빛의 뮤지엄' 사업과 중복
- '핵점포 육성' 10곳서 2곳으로 축소
- '청년-장인 커넥티드' 사업 종료
 - '충장마을백화점' 편입 검토
- '메타버스 쇼핑몰' 조성 폐지
 - '스마트폰 앱 플랫폼' 개발로

금남지하도상가 만남의 광장 일대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는 '에코가든 스테이'(4억 3000여만원) 사업도 폐지됐다.

이 사업 역시 동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지하상가 내 미디어아트 전시관 설립 사업 '빛의 뮤

지엄' 사업과 사업 부지가 겹치는데다, 에코가든 스테이의 '친환경 공간'과 빛의 뮤지엄 '미디어 아트'의 콘셉트가 상충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핵점포 육성' 사업 또한 당초 10개 핵점포가 대상이었으나 2곳만 육성키로 했다. 예산은 4억 87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청년상인과 충장로 명장·명인들을 매칭해 협업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판매하는 '청년-장인 커넥티드' 사업도 지난해말 종료됐다. 현재까지 청년상인 단 3명만을 육성하는 데 그쳤으며, 상품을 지속 판매할 거점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동구는 청년-장인 커넥티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충장마을백화점' 사업 내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충장마을백화점'은 충장로4·5가를 권역별로 나누고, 상권리뉴얼, 결제서비스 간편화, 스마트상권

플랫폼 연동 등을 거쳐 충장로를 하나의 백화점처럼 운영하는 게 골자다. 예산은 4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충장로 '메타버스 쇼핑몰'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상인들 반발에 부딪혔던 '스마트 상권 플랫폼'은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을 버리고 온라인 쇼핑을 위한 스마트폰 앱 플랫폼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이마저도 지난 2023년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플랫폼 활성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5억원에서 6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고 개발 기간을 연장했다.

동구 관계자는 "5개년 장기 계획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코로나19를 거치고, 다른 사업들이 새로 생겨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폭 수정된 것"이라며 "상인들과 지속 협의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세먼지 아닙니다다 봄비가 내린 19일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본 도심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5개 구 폐지 수집 노인 챙긴다

맞춤 서비스 제공 위해 생활 수준·복지 욕구 등 실태조사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폐지 수집 노인들의 건강과 주거 환경 등을 챙긴다.

자치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말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 수준과 근로·복지 욕구를 확인해 보건·복지 부문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폐지물처리업체, 고물상과 거래하고 있는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파악한 후 동 행정복지센

터 직원이 해당 가정에 방문해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 주거환경,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의향, 돌봄 서비스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5개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조사된 내용은 행복e음(사회복지전산시스템)에 등록해 폐지 수집 노인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각 구정은 이들을 지자체 위기가구로도 관리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세월호참사 10주기 광주시민위원 모집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세월호참사10주기를 맞아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상주모임)이 '광주시민위원'을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참사10주기 광주시민위원'은 개인,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광주 지역 세월호참사10주기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개인은 4160원 또는 4만 1600원, 단체

는 4만 1600원 이상의 후원금을 입금하면 된다. 신청은 링크(<https://bit.ly/48NnXkW>)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세월호참사10주기 전국시민행진'은 오는 26일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해 28일 광주에 도착한다.

광주행진은 28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주지방병원과 남구푸른길, 서구 팜양동·금호동·운천저수지까지 행진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교대 정시 경쟁률 급상승...합격선은 하락

광주교대,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 25.7% 달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전국 교육대학교와 일반대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이 급상승했지만, 미등록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보면 합격선 자체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 현황을 공개한 전국 8개 교대의 경우 미등록자가 233명(13.1%)으로 전년(243명·15.9%)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학교별로 보면 최초합격자 미등록 비율은 광주교대가 25.7%, 춘천교대가 19.7%, 경인교대가 17.4%로 비교적 높았고, 서울교대는 12.0%였다.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 가운데서는 제주대가 19.6%, 이화여대가 6.3%였다. 2024학년도 전국 교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3.15대 1로, 전년도(1.87대 1)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수시모집 합격자 가운데 미등록 인원이 많아 정시모집 인원이 늘면서 합격선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기대감이 때문에 상당 지원

한 수험생들이 많아 교대 외 타 대학에 동시 합격하고 미등록한 인원이 전년 대비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종로학원은 "일부 교대 정시 최초 합격 사례가 국·수·탐 평균 4등급 대까지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추가합격자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점수대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시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졌지만, 합격선은 높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황 따라서는 하락이 예상된다"라며 "올해 정시모집 경쟁률 상승을 교대 선호도 상승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